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딤후4:1-8

예배에는 인간을 저주에서 건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지만 예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 안에도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신앙 고백에도 당연히 이런 권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저주에서 나오고 오히려 저주를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과 누림의 예배가 다 되길 바랍니다.

1.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무슨 재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합니다. 롬4:17에 "…..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고, 하시고 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2) 1절은 그 명령의 엄청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중대한 명령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3)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도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도 말씀으로 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4) 요1장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명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말씀으로 살립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5) 모세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도망을 칠 수 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애굽에서 왕자 대우를 받고 살던 것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하나를 받은 이후에는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6) 수 많은 기적과 함께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런 축복을 두고 다시 왕자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이 인생 역전의 분기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한 마디를 받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며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아무도 막지 못할 권세인 것입니다
8)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도 이런 극적인 순간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 역전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세계복음화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9)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요셉과 꼭 같은 눈이 열릴 수 있고 모세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성경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남은 자의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10) 그러므로 성경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품을 남긴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과 제자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항상 복음이어야 합니다.

11)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과 예표와 상징과 사건과 스토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죽으심을 전달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을 지속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인생을 정복하고 회복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2)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말씀 운동의 내용과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운동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사단이 무너지고 내가 해방을 누리고 증인 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잡고 실행에 옮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1)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 안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디모데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오래 참음의 자세로 고난을 받으며 …..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은 우리 전도자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 때는 사역이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엄격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한다는 단어들은 지금은 사역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2) 시대의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자는 거기에 맞게 자세를 새롭게 하여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 없이 그냥 말씀만 전달하면 우리의 직무는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냥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일이요 우리의 직무입니다

3) 그 다음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 주위의 상황이나 상태에 상관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요약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4)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무기를 가진 것이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완전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행동으로 옮기므로 약속의 증거를 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